

해명자료

문의 : 방송진흥기획과 김광동 팀장(☎750-2315)
방송진흥기획과 이상수 사무관(☎750-1041) seagull@kcc.go.kr

“분유 · 생수광고 종편 위해 허용” 사실과 달라

- 조제분유 업무계획 포함한 바 없고, 생수 지상파 광고 허용 추진 -

'11. 12. 13(화) 한겨레 및 머니투데이 기사 중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항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□ 보도 내용

- (한겨레) 방통위는 지난해 업무계획을 통해 새롭게 방송광고가 가능한 품목으로 먹는 샘물과 조제분유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.
- (머니투데이) 방통위는 지난해 업무계획을 통해 방송광고가 가능한 품목에 먹는 샘물과 분유, 의약품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.

□ 해명 내용

- 방통위는 지난해 업무계획에 조제분유 광고 허용 내용을 포함한 바 없으며, 조제분유 광고를 허용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도 없음
- 아울러, 생수 광고 허용 논의는 종편과 관련이 없으며 현재 생수 광고가 금지된 지상파방송에 대한 광고허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음

※ 방통위는 의약품 광고와 관련 전문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에 대해 일반 의약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식약청에서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 추진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중임